

대학생활의 로또...해외봉사 지원자 몰려

불교계 종립대·사찰 해외봉사 대학생에 인기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이 중요한 스펙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방향을 맞아 해외여행 대신 해외봉사를 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각 기관 및 단체서 해외봉사자로 선발되는 것은 '대학생활의 로또'라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불교 종립대학교 사찰서 실시하는 해외봉사가 학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참가비용은 학교와 단체의 후원으로 소액만 지불하며, 인턴쉽과 문화탐방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경쟁률이 6:1에 이를 정도로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자 선발 기준 역시 까다롭다. 학점제한, 자기소개서 등 1차로 서류심사를 마친 뒤, 2차 면접을 통해 봉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한다. 해외봉사활동은 대부분 노력봉사와 교육봉사로 이뤄진다. 집짓기, 벽화그리기, 한국·영어 교육, 문화교류 등이 주 프로그램이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은 매 학기 방학마다 재학생 30여 명을 선발해 해외봉사에 나선다. 참사람봉사단은 7월 2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해 2주간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봉사활동은 카자흐스탄 국립대 재학 중인 학생들과 장애인 노인 요양병원 쉼터 건립을 한다. 특히 신한·국민 은행 등 우수 금융기업의 해외인턴쉽 활동도 포함돼 인기가 높았다. 인턴쉽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봉사자 30명 중 10명으로, 인턴쉽 과정을 마친 학생들

에게는 학점도 부여된다.

동국대 손재현 교수(사범대 체육교육과 무용담당·참사람봉사단 부단장)는 "최근 기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젊은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 해외봉사에 관심이 큰 것 같다"며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알려주는 최고의 교육이다. 아직까진 불교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쳤지만, 앞으

불교도 알리고, 봉사도 하고

해외 인턴쉽, 소액 참가비용

경쟁률 6:1, 지원자 속출

봉사도 스펙으로 자리매김

로는 종립학교나 만큼 불교포교를 위한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6년째 해외봉사활동을 해온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단장 박상범)도 지난 6월 30일~7월 7일 필리핀 알바이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0년부터 하계는 필리핀, 동계는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35명의 학생이 선발됐지만, 평소에는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한다.

봉사활동은 집짓기, 학교 페인트 칠하기, 마을 환경 정화 등이다. 이밖에 인도, 몽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은 6월 30일~7월 7일 필리핀 알바이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봉사자들이 필리핀 학생들과 부채만들기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자료제공=동국대 경주캠퍼스

골에서 의과대학,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의료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김영중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해외봉사활동은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와 동국대의 위상을 높이고, 더불어 봉사정신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및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조계사 대학생회도 지난 2월 15명의 학생들이 로터스월드와 협력해 5박7일간 캄보디아로 해외봉사에 나섰다.

조근희 조계사 대학생회 부회장은 "주변 친구들과 봐도 취업문제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참가했지만 막상 봉사활동을 하니 많은 것을 배워 좋은 경험이 됐

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금강대(총장 정병조)도 9월 봉사단 발대식을 마치고 봉사단원을 선발해 동계방학 중 해외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약 15명 학생을 선발해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봉사를 펼친다.

이외에도 정도회는 매년 여름, 겨울 두 차례씩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필리핀·인도 등으로 해외봉사에 나서고 있다. 참가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봉사 지원자는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정도회는 지난해까지 역사탐방과 봉사활동을 겸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동북아역사대장정만 실시한다.

이은정 기자 soe94@hyunbul.com

신행 소식

개운사, 런던올림픽 선전기원 마라톤 개최

서울 개운사(주지 범해)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 선전기원을 위해 8월 12일 '2012 성북구민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대회 코스는 개운사 경내 운동장을 출발해 안암역을 거쳐 아리랑고개를 반환하는 5km 코스와, 이를 지나 성북공원, 성가정입양원을 돌아오는 10km 코스

로 진행된다.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은 "성북구민들과 함께 런던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계기로 마라톤 동호인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위한 숲속판화체험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여름방학을 맞아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함께 전통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숲속판화학교'를 연다.

프로그램은 7월 28~29일, 8월 4~5일, 8월 11~12일 3회에 걸쳐 목판화 티셔츠를 만들기, 전통책 만들기, 우리집 가훈 만들

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도, 명상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단, 다문화 가정은 무료. (033)761-7885

한국불교건축의 아름다움 느끼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범정)가 국제선센터 국제극장 명품 스님, 신재순 건축가와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기행'을 실시한다.

행사는 7월 29일 진행되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 유적을 탐방한다. 우리나라 인공연못 중 가장 오래된 부여

공남지, 불교와 민간신앙이 결합된 나주 벽나리 민불, 독특한 건축양식을 자랑하는 완주 화암사 등 전라도 일대를 돌아보며 한국불교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5만원. (02)2650-2200

신흥사 토요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가 9월 1일 어린이법회 토요일아카데미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을 맞아 '체험'을 통해 희망을 꿈꾸는 즐거운 토요일이란 주제로 열린 프로그램은 원각사를 비롯한 속초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토요일아카데미를 연다.

토요일아카데미는 만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아동미술 및 수채화, 클레이교실, 난타,문화재탐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033)636-7044

올레길 걸으며 참나를 찾다

서귀포 약천사(주지 성원)가 여름방학을 맞아 올레 휴양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여름불교학교, 영어놀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여름불교학교는 7월 28~29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약천사 순력도 만들기, 전기자전거타기, 허브 버무리 만들기, 법성도 걷기, 예불, 포행, 사물 체험 등을 진행한다. 또 7월 30일~8월 1일 초등학교 3학년 이

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무찰흙놀이, 원투게임, 물놀이 등을 진행하는 영어놀이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이밖에 중·고등학생과 일반을 대상으로 8월 3~5일 올레길을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올레 휴양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올레길 걷기, 묵언 포행, 산책, 108배 참회, 합장주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64)738-5000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첫 대학생 광고 공모전

국문, 영문판... 9월 9일까지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와 공동주최로 '제1회 템플스테이 대학(원)생 광고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1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광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참가 자격은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 및 대학원생이며, 공모분야는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국문판 인쇄광고와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문화,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영문판 인쇄광고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된다. 광고 작품 공모는 오는 8월 13일~9월 9일 공모전 전용 온라인 카페(cafe.naver.com/adtemplestay)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9월 11일 온라인 카페에 공지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은 전체 부문에서 대상 1팀을 선정해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이와 함께 2012년 하반기 템플스테이 광고로 활용되는 특권이 부여된다. 또한 특별상(한국관광공사 사장상) 1팀에게는 오는 11월 영국 런던 세계여행박람회 참가를 위한 항공비와 숙박비(2인 기준)가 제공된다. (02)5641-1806

신종일 기자 mt97@hyunbul.com

청소년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다

(사)평화로운세상, 8월 3~5일 범흥사서 평화캠프

전국 청소년들이 모여 평화와 공존을 배우는 캠프가 열린다. (사)평화로운세상 만들기(이사장 도완)는 오는 8월 3~5일까지 2박3일간 범흥사 경내에 있는 하이원 평화캠프장에서 '제3기 청소년평화캠프'를 개최한다.

2박 3일간 캠프하며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아 체험, 농촌봉사활동, 구봉대산 트레킹,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캠프 기간 중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평화 음악회도 열린다. 8월 4일 범흥사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전년의 향기 금강송과 함께하는 평화음악회'에는 음악회는 서울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테너 이

동원, 소프라노 정재희의 성악공연과 여성5인조 퓨전국악결구름 '아랑'과 중국 전통현악기단 '12소녀악단' 연주공연 등이 선보여진다.

또한 평화로운세상만들기 홍보대사인 4인조보이밴드 범킨스의 락공연과 가수 이창휘, 강달남, 국도영 등의 노래공연도 만날 수 있다. 도완 스님은 "청소년들이 캠프를 통해 공동체문화를 체험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을 배워 진취적인 이상을 가진 인재들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화캠프 참가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선착순 200명을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033)375-3201 신종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흥 산 현 불 총무원장 자 랑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사암 사진 (안·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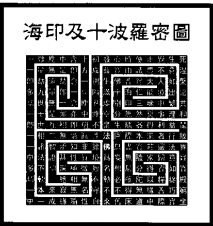


법성계 38x145cm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계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계 휘호는 신묘한 기가 있습니다.

※ 달마도도 보급합니다.

- 보급가 15만원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 우리불교조계종)
- H·P 010-6478-1569



해인及十波羅密圖
해인도 10.5x17.5cm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